



선관위 직원들이 12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민주통합당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현장투표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구〉

〈북갑〉

〈북을〉

〈광산갑〉

장병완 강기정 임내현 김동철

민주 광주 4곳 총선후보 선출

민주통합당 광주 경선결과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했다.

정치 신인들은 민주통합당이 공천 혁명으로 내놓은 '국민경선'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4년 동안 더자놓은 '조직'의 벽을 넘지 못하며 모두 석패했다. <관련기사 3·4면>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광주지역 4곳을 포함한 전국 25곳의 3차 경선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광주 경선결과 장병완(남구), 강기정(북구 갑), 김동철(광산 갑)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현역이 경선 후보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북구 을은 임내현 후보가 확정됐다.

남구 선거구 선거인단 투표결과 장병완 의원이 총 유효투표 수 6133표 중 79.71%인 4890표(현장 856·모바일 4034)를 얻어 1243표(현장 165·모바일 1078)를 얻은 김병진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합류했다.

북구 갑 경선에서는 현역인 강기정 의원이 4134표(현장 1770·모바일 2364)을 얻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형석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선전했지만, 2572표(현장 1060·모바일 1512)

를 얻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 후보는 강 의원의 흥보 물 무단 수거에 대한 중앙당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당 결정을 지켜보니 경선 승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전·현직 의원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광산 갑은 김동철 의원이

4412표(현장 1789·모바일 2623)를 획득해 4232표(현장 1702·모바일 2530)를 얻은 전경길 후보를 180표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공천권을 따냈다. 전 후보는 바닥 민심을 훑으며 선전했지만, 아쉽게도 현역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역인 김재균 의원이 경선에서 컷 오프되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3명이 경선에 나선 북구 을 선거구에서는 임내현 후보가 3885표(현장 1152·모바일 2733)를 얻어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임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어렵사리 민주통합당 후보가 됐다. 3704표(현장 993표·모바일 2711표)를 얻은 최경환 후보는 선전했지만, 아깝게 181표 차이로 임 후보에게 석패했다. 최

경우 후보는 3271표(현장 1000표·모바일 2271표)를 얻었다.

전북 10개 선거구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이 참여한 5곳의 경선에서 이강래(남원·순창)·이춘석(의산갑)·최규성(김제·완주)·김준진(고창·부안) 등 4명이 이겼다. 익산 을에서는 전정희 전북대 겸임교수가 3선의 조배숙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공천권을 따냈다.

수도권에서도 정동영(서울 강남을)·김희철(관악을)·이찬열(수원갑) 의원과 심재권(서울 강동을)·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6곳에서 모두 이기는 등 전·현직 의원의 강세가 뚜렷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4·11총선 광주 경선 결과

(단위:표)

지역	후보	모바일	현장	합계
북구	김기정	2364	1770	4134
갑	이형석	1512	1060	2572
북구	임내현	2733	1152	3885
을	최경환	2711	993	3704
	최경주	2271	1000	3271
남구	장병완	4034	856	4890
	김명진	1078	165	1243
광산구	김동철	2623	1789	4412
갑	전경길	2530	1702	4232

광주서 KTX타고 인천공항 간다

내년말까지 선로 개설…3시간 소요

전라선은 시험운행 돌입

내년말이면 광주·전남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돼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호남선 KTX는 용산역 까지만 연결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같아야 했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2.2km 선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호남선의 경우, 용산~수색~인천국제공항으로 연계돼 광주에서는 3시간 10분이면 인천공항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2014년 오송~광주간 KTX

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2시간이면 (1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목포에서는 2시간30분(2014년), 2시간15분(2017년)이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전라선(신안역~여수엑스포역) 고속화 사업 시공을 마치고, 12일부터 종합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공단은 종합 시험운행을 거쳐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인 4월 30일 개통할 예정이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으로 용산역~여수엑스포역을 2시간 57분 대에 운행할 수 있게 돼 여수세계박람회 오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60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공연

세시봉친구들 콘서트 두번째 이야기

이상벽 / 정훈희 / 김세환 / 송창식



4월 20~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세시봉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0년 MBC 오락프로그램에 출연, 시청자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세시봉 친구들은 이후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최고의 문화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명 MC 이상벽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깊은 울림 있는 목소리의 송창식, 아름다운 미성의 소유자 김세환과 함께 '안개' '꽃밭에서'의 정훈희가 합류, 새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내 최고 세션 밴드가 함께하는 콘서트에서는 각자의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아름다운 화음을으로 멋진 노래를 들려줄 것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옛 시절의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음악의 진정성을 선사할 '세시봉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 콘서트에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2012년 4월 20일(금) 오후 8시

21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KBC 광주방송

●주관: KBC 플러스

●예매: 쇼티켓·인터파크

●문의: 062-220-0541, 1544-0412

광주일보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 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무등산과 백악산의 청정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가 철저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수는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수질연구소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빛여울 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차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시에는 받아서 사용한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절약형 샤워꼭지를 부착한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 한번 사용한 물을 재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